

경남일부 중·고등학생의 식생활 관련 인터넷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
이경혜·강현진·허은실*. 창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

본 연구는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경남지역 중, 고등학생 729명(남학생: 363, 여학생: 366)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현황, 인터넷 식생활 관련정보 및 인터넷 영양상담의 이용에 관한 사항, 청소년 식생활관련 사이트 개설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하였다.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 인터넷 이용횟수는 '일주일에 6-7회'가 45.0%로 가장 높았고, 대부분이 1회 '2시간 미만'의 이용시간(68.5%)을 가지고 있었다. 주된 인터넷 이용장소는 '집'이 79.0%로 가장 높았고, 대부분 '진용통신망을 이용'(71.6%)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었다. 검색엔진은 '야후'(45.7%)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, 남학생은 '네이버'(12.7%)와 '엠파스'(11.3%)를, 여학생은 '다음'(26.2%)을 선호하였다($p < 0.001$). 인터넷 이용 목적으로는 '사교생활을 위해서'(45.0%)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, '정보를 얻기 위해서'(24.8%), '게임을 위해서'(14.8%) 순이었고, 남녀간에 차이를 보였다($p < 0.001$). 청소년들이 가장 신뢰가 간다고 응답한 정보 제공 기관은 '교육기관'이 49.4%로 가장 높았고, '정부기관'은 13.8%로 매우 저조한 비율을 보였다. 현재 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는 '빈약한 정보'(26.4%), '낮은 접속속도'(22.6%), '흥미를 끌지 못하는 점'(18.8%), '느린 업데이트'(14.7%)순으로 나타났다.

인터넷의 식생활 관련정보를 얻는 경험을 가진 학생은 전체의 27.9%로 저조하였고, 이런 현상은 남학생에서 두드러졌다($p < 0.01$). 또한 식생활 관련 정보를 얻는 목적에 대해 전체의 33.3%가 '숙제를 위해서'라고 답하였고, '건강을 위해서'도 32.0%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. 식생활 관련 정보에 접속하게 되는 동기는 55.7%의 학생이 여러 사이트를 항해하다가 우연히 접속하게 되었다고 하였고, '검색엔진을 통해서'는 21.3%로 저조하게 나타났다. 인터넷 영양상담 경험을 가진 학생은 전체의 7.7%로 매우 저조하였고, 여학생의 상담경험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($p < 0.05$). 인터넷 영양상담의 횟수는 '1회'(55.8%)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, 전체의 55.8%가 '사이트를 항해하다가' 상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. 상담을 하게된 목적으로는 '다이어트를 위해서'가 41.5%로 가장 높았고, '건강문제로'도 30.2%로 나타났으며, 성별간에 차이를 보였다($p < 0.05$). 상담결과에 대해서는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.

원하는 영양정보로는 '키가 크는 식사관리법'(41.4%)이 가장 높았다. 바람직한 업데이트 기간으로는 '2주미만'이 50.1%, '2주-1개월'이 36.1%를 보여 대부분의 학생이 빠른 업데이트를 원하고 있었고, 이런 경향은 남학생에서 더 높게 볼 수 있었다($p < 0.001$). 정보를 얻을 때의 선호방법은 전체의 32.3%가 '게시판'을 선호하고 있었고, '게임'(21.1%)과 '애니메이션'(19.3%)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. 이상에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비율과 빈도는 높으나 식생활 관련정보의 이용비율은 저조하였는데, 이의 원인으로는 정보의 질 문제와 가장 크게 들고 있었다. 따라서 학생들이 원하는 질 높은 정보를 학생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모색이 필요하겠다.